

1:1 유다 왕 ()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
 시대의 지진 전 이년에 () 목자 중 아모스가 ()에 대
 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1. 유대 왕 웃시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에 대해 다음 성경구절을 통해 알아 봅시다.
 (왕하 14:23-15:7, 대하 26)

2. 유다의 시골마을 드고아의 뽕나무 재배자(7:14)요, 목동 출신 아모스가 당시의 강대한 나라
 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표 1. 이스라엘 주변국에 대한 저주

해당국가(도시)	저주의 이유	저주의 내용	비고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창25:30)			
대만			
암몬 (창19:38)			
모압 (창19:37)			
유다			

3. 저주의 이유가 비슷한 나라들 끼리 모아 보세요.

4. 두로의 죄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왕상 5:12 참조)

* 언약의 하나님

- 창21:18

- 수 9:19

5. 에돔의 죄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민 20:14-21, 욥 3:19, 욥1:11)

6. 암몬의 죄악의 특징이 무엇인가요?(신 2:19, 삿 11:15)

7. 주변 국가의 저주의 이유와 유다의 저주의 이유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8. 이토록 변영한 시기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질적인 번영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9.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0. 서너가지 죄란, 죄가 적지 않다는 뜻이며, 반복해서 범하는 고질적인 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내게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죄는 없습니까?

제 2장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암 2:6-16) 6/11/05

1.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1) 사회적 불의(6-7상)

2) 성적인 타락(7하)

3) 종교적 타락(8)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9-11)

3.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12) “그러나 너희가?”

* 나실인 규례(민6:1-8)-3가지 금지사항

①

②

③

1)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4.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13-16)

13절. Behold(KJV)

적용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우리가정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 또는 우리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3.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또는 “그러나 나(우리)는”라는 표현 뒤에 어떤 죄들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4. 최근에 나의 잘못(죄)을 지적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으며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제 3장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암 3:1-4:13) 7/9/05

아모스가 이방나라를 향해 심판을 선고할 때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심판의 화살이 자신들에게 향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냉담하게 반응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스를 향해 도데체 무슨 근거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반문한다.

1. 너무나 분명한 심판의 이유(3-b)-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동의)했기 때문
- 사자가 수풀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먹이)를 찾았기 때문
- 새가 텃에 걸렸다는 것은 텃을 놓았기 때문/ 그물이 출렁였다는 것은 새가 그물에 걸렸기 때문
-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전쟁나팔) 소리가 울렸기 때문
- 재앙이 성읍에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시키셨기 때문

2. 너무나 확실한 심판 예언(7-8)

-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일이 없으시다.
- 사자가 부르짖는 데 누가 무서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3. 이방인들도 놀란 이스라엘의 죄악

9절-이스라엘의 죄가 (아스돗-블레셋)과 (애굽)사람들조차도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4. 심판의 내용(11-15)

- 1) 원수(앓수르)이 공격하여 강한 성과 요새를 부술 것이다.(11)
- 2) 멸망 받기 전의 이스라엘의 부요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12하, 15)
- 3) 그런데 그렇게 부요하던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가?(12상)
- 4) 다메섹에까지 세력을 확장할 정도로 부요했던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예언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 5) 뱀엘의 단들(14)-왕상 12:25-33을 보라. 무슨 의미인가?
- 6) 제단의 뿔들이 꺾여 땅에 떨어뜨리울 것이다. 왕상 1:49-51을 보라. 무슨 의미인가?

5. 바산 암소들(이스라엘의 부자 여인들)의 죄(1)

* 바산-요단강 서편의 비옥한 지역.

6.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비롯으심

1) 벤엘(창28:10-22)과 길갈(수4:19-20)-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 중심지인 동시에 심각한 우상 숭배의 장소

2) 삼 일마다 십일조를 드려보라-“제 삼년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신26:12) 십일조는 3년마다 드리는 예물. “그러나 삼일마다 십일조를 한다 해도 나는 그 예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3) 누룩 넣은 떡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멸시함.-“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4) 딤후3:5 “경건의 ()은 있으나 경건의 ()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책망하심 *

7. 심판 전의 예비 경고(6-11) “---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 _____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6)

2) _____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7-8)

3) _____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9)

4) _____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10)

5) _____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11)

8. 하나님의 심판 결심(12-13)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1)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아모스의 애가(슬픈 노래)의 내용(2-3):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짐.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음. 성 안에 사람이 텅 빔(포로로 잡혀 갈 것이기 때문)

1. 하나님의 회개 촉구: 뻔엘,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

2.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7:

10-12:

3. 뻔엘, 길갈,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도 하고 위의 죄도 범한 것을 볼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있었지만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삶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계명(마 22:37-40)을 볼 때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은 있었는데 “이웃 사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마 25:40, 45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이 지극히 ()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 골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께 하듯 하고 ()에게 하듯 하지 말라”
 * 요일 4:20-21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를 미워하면 이는 ()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를 사랑할찌니라”

5.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고 믿은 이유가 무엇일까?

6.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구절은?

7. 벤엘, 길갈, 브엘세바 등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 장소를 향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1) 이사야 55:6-7

14-15

2) 렘 29:13

잠 2:3-4

3) 계 3:20

요 15:3-4

1. 시온에서 안일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1)

- 시온:

- 사마리아:

2. 이스라엘의 안일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4-6)

*** 영광과 번영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

1) 자신들이 잘해서 이룩한 부라는 생각함

2) 그 쾌락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3.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이렇게 안일한 생활을 하였는가?(3)

* 요셉의 환난(6절)이란? 5:5-6참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에브라임)과 므낫세(길갈)

4. 요셉의 환난(6)과 같은 말을 3절에서 찾아보자.

5. 요셉의 환난의 결과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7)

6.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8-11)

1) 이스라엘의 멸망의 어느 정도로 확실할 것인가? "주 여호와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8)

창22:16/ 출32:13/ 사45:23-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확실한 약속(축복과 저주 모두)

2) 멸망의 내용

* 13절, **허무한 것(허무. Nothing), 뿔(한 쌍의 뿔. 군사적인 힘의 상징)**-이 두 성은 여호아하스가 하사엘로부터 빼앗은 성들로서(왕하10:32-33, 13:25)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번영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빼앗은 성 Lo Debar는 허무하게 다시 앗수르에 빼앗겨 낡는 것이 없게 될 것이며, 한껏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Karnaim도 앗수르에 빼앗기곤 할 것이다.

7. 14절의 한 나라는?

8. 14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서부터 남쪽 경계까지

적용질문

1.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신 8:18)

2. 우리가 복 받을 때의 하나님의 두려움(신 8:17)

3. 우리가 복 받을 때 하나님의 당부

1) 시62:10

2) 신 16: 10-13: 기억하라

①

②

③

1. 말씀하시고 보여 주시는 하나님(7:1,4,7, 8:1, 9:1)

- 하나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환상, 그것도 5번에 걸쳐 거듭 보여 주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 주신다.

* 말씀으로 알려주신 것을 어떤 사건이나 꿈 등 통하여 보다 확실히 알려 주신 적이 있는가?

* 5가지 환상

- 진노를 돌이키신 2가지 재앙: 1) 황충(메뚜기) 재앙(7:1-3), 2) 불 재앙(7:4-6)
-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3가지 재앙: 1) 다림줄(7:7-9) 2) 여름 실과(8:1-3) 3) 제단(9:1)

2.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자비의 하나님)-황충(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

- 1) 때-왕이 풀을 베 후 풀이 다시 움이 돋기 시작할 때(추수 직전)
- 2) 하나님 진노를 온 몸으로 막아서는 아모스-“여호와와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2)
- 3)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라”(3)

* 출 32: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 욥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 그는 은혜로 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 욥 3:10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 하나님께서 진노의 뜻을 돌이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3. 진노하시는 하나님(공의의 하나님)-다림줄, 여름 실과, 제단 환상

1) 다림줄-건물의 수직 여부를 확인하는데 쓰는 기구. 건물이 수직을 이루지 않으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함. 이스라엘의 행위를 다림줄로 재어보니 수직이 안되므로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는 형편.

* 다림줄에 측량된 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가?(8:4-b)

- ① 사회적 불의-궁핍한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함(4,6)
- ② 종교적 무관심-월삭과 안식일 언제 끝나지? 빨리 곡식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은데...(5)
- ③ 상업적 부정직-거짓 저울과 예바(5)

2) 익은 여름실과-“ 끝이 다 되었다 ”

3) 이러한 아모스의 외침에 대한 당시 왕과 선지자(아마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7:10-17)

*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 한 나라의 가정과 개인의 부강함이 물질의 풍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얼마만큼 진지한가?

4) 유보는 취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하신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자.

① 눅13:1-5

* 3.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② 눅 13:6-9

* 8-9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많이 실락이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4. 말씀의 기쁨 시대- "여호와와 말씀이 없으므로"(8:11-14)

최후통첩-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리라.

삼상3: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 말씀 고픈 경향이 있었는가? 말씀의 기쁨을 느껴보았는가? 가장 최근에 말씀을 깨달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1. 다섯 번째 환상(1-4)

- 1) 아모스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가?(1)
-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을 기대하였을까?
- 3) 그런데 제단 곁에 서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1-4)
- 4) 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의 예언을 하셨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였다.

2.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5-6)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참하고, 철저한 멸망을 예언하신 때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부흥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는가?

* 그 이름은 _____시니라

3. 하나님의 진노의 결심(7-10)

- 1) 나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7):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레셋을 갓돌에서, 아람을 길에서.
- 2)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8-10)
 - 8절 ☉ <진노>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여 보시고 지면에서 멸하리라
 - ☉ <궁휼>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 9절 ☉ <진노> 이스라엘을 체질하리라
 - ☉ <궁휼> 그러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10절 ☉☉ <진노> 돌이키지 않는 죄인은 반드시 칼에 죽으리라
- 3) 진노와 긍휼이라는 두 줄을 밀고 당기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는가?

4. 길노 중에 베푸신 긍휼(11-15)

1) 10절의 하나님의 최종 결심을 볼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인가?

2) 혼내고 달래어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인가?

-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심(11): 이스라엘의 회복(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

다윗의 **왕궁**을 일으키시라고 하지 않고 **천막**을 일으키시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 에돔(원수나라)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심(12): 이방인의 구원

-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13-14)

3)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확고한 결심이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 되었는가?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뿔히지**)아니하리라"

4)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에 대한 다른 표현 두 곳.

- 12절: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15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5) 위의 두 구절과 6절 마지막 부분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6) 애가 3:19-33(구약 p. 1147)을 읽어 봅시다.

* 여호와의 자비한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22-23)

*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니라(32-33)